

금융·유통株 ‘들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 보나

금융주, ‘더블배당’ 기대감 커져
주주환원 확대에 투심 자극
유통주서 이마트 10.49% 급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동반돼야”



/유투이미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예고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금융주와 유통주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KRX300 금융은 15.91% 상승했으며, KRX 은행 지수는 15.06% 올랐다. 더불어 KRX 증권과 KRX 보험 지수 역시 각각 12.50%, 22.12%씩 상승했다.

올해부터 결산배당이 시행되면서 금융주는 ‘더블 배당’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이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1분기 배당과 동시에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주들이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투심을 자극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혔던 금융주의 매력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성이 당부되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2023년 초

에도 주주환원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 은행업종 주가에 반영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현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경험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전략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조절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단기간 상승세를 기록한 금융주 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 동반되는 종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ROE 개선이 동반돼야 하고, 이를 위한 주주환원을 제고, 그리고 주주환원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재원 및 자본비를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은 금융주뿐만 아니라, 유통주 역시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지난 2일 기준 주요 유통주의 PBR은 ▲이마트 0.21배 ▲롯데쇼핑 0.25배 ▲현대백화점 0.28배 ▲신세계백화점 0.43배 등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이마트의 주가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일 이마트의 주가는 10.49% 급등했다. 이외에도 롯데쇼핑 역시 지난주 내내 오름세를 보이며 17.92% 가량 올랐으며, 현대백화점도 동일 기간 22.89%,

신세계도 10.98% 상승했다.

다만 이에 대응할 유통업계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동반될 필요성도 검토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중에 발표될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주요 기업들의 PBR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심은 주주환원을 제고 여력과 기대 배당수익률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주주환원을 제고를 통해 기대 배당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부연이다.

또한, 유통주에서도 ROE 동반 여력이 주목된다. 박 연구원은 “PBR이 낮은 주요 유통 업체들의 ROE는 대체로 낮고,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라며 “당사 커버리지 중 PBR 1배 미만 종목 중에 ROE가 10%를 넘는 경우는 없으며,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HBM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영업익 10兆 ‘장밋빛 전망’

(고대역폭메모리)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시용 고성능 메모리 수혜강도 증가
증권사,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올 2분기부터 HBM 증설분 가동



SK하이닉스 이천 행복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디램(DRAM) 출하량 증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 등을 통해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0.80% 감소했

다. 작년 4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3460억원을 기록하면서 5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매출은 11조30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 늘었다. 하지만 주가는 다소 고요한 모습이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SK하이닉스의 디램, 낸드(NAND) 출하량은 각각 16%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 수요가 공급을 4%, 6%씩 초과할 것”이라며 “특히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확산은 중장기 메모리 수요를 2배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 HBM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2024년 영업이익이 10조원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HBM 생산능력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용 고성능 메모리 관련 SK하이닉스의 수혜 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증권사 모두 각각 SK하이

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KB증권은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DS투자증권은 15만3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5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올해는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HBM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은 “HBM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 늘어날 것”이라며 “AI 상용화 수준과 신규 사

용처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4조9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부터 HBM 증설분이 가동되기 시작하며 디램 출하가 증가해 가파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2분기에 디램 가격의 상승폭이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지만, 보수적인 운영 정책과 HBM 비중 확대를 통해 이를 타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동시에 하나증권 역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15만8000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현대차증권(15만4000원에서 16만6000원) ▲DB금융투자(15만6000원에서 17만원) ▲흥국증권(16만2000원에서 16만5000원) 등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렸다. /신하은 기자

설 연휴에도 국내 증시 반등 이어지나... “단기과열 경계 필요”

코스피지수, 아직 마이너스 상태
정책 세부 발표까지 주가 양호할 것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대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615.31로 연초 이후 1.87% 하락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소식이 지난주에만 5% 넘게 반등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닥 지수는 814.77 연초 이후 5.98% 하락해 더 부진하게 움직였다.

반면 미국 주요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지수는 3만 8654.42, S&P500지수는 4958.61로 올해 들어 각각 9번째, 7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올랐다. 대표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3만 6158.02로 버블경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1989년 12월 29일 역대 최고치(3만 8915)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대감으로 세부내용이 나올 때까지 만년 저평가주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증시 역시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행동주의 강화 등과 우호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34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추가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여전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고려할 때 코스피의 상대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부가 수준인 PBR 1배를 우선 회복한다고 볼 때 해당 지수는 코스피 기준 2650~2680선”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 단기 과열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증시 부양정책을 벤치마킹해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끔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이 기대의 포인트”라면서도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일본 대비 크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일본만큼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제조업 및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실적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책에 의한 배당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 주주환원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와 악재가 섞여있는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장협, ‘XBRL 재무공시 점검사항’ 발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핵심 점검사항’을 발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업 상장회사는 지난 2023년 3분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의 XBRL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비금융업 상장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의 XBRL 공시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발간자료는 XBRL 공시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특히 상장회사가 20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전 점검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원

칙, 금융감독원 지도 및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해 자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XBRL 주석 작성 방식인 디테일 태깅(Detailed Tagging)과 블록 태깅(Block Tagging)의 대표적인 실습사례를 추가해 실무의 이해를 도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상장협 홈페이지에서 XBRL 발간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장협은 작년 한 해 XBRL 제도 확대에 발맞춰 상장회사의 실무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TF 참여 및 실무 의견 개진, 감독기관 XBRL 시범가동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특히 실무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총 12회에 걸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과 현장코칭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신하은 기자